

GANGJIN 

# *Web Contents*



# 목차

목차	2
-----	-----
보도자료	3
-----	-----
강진 6.25 민간인 희생자 113명 증언 책으로 담았다	3
첨부파일(1)	3
-----	-----


## 강진 6.25 민간인 희생자 113명 증언 책으로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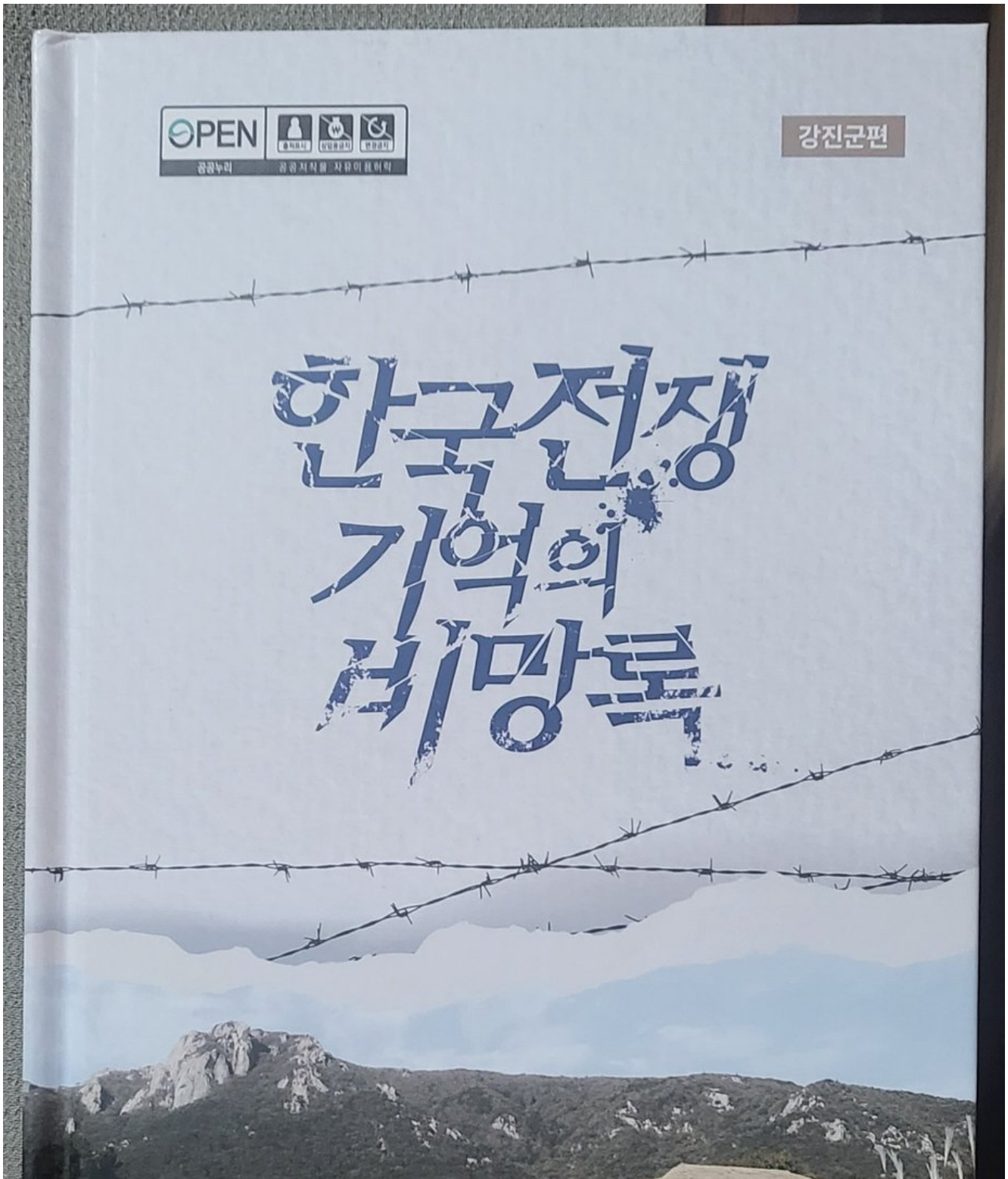
작성일 2023.06.05 13:31

등록자 강진군청

조회수 157

보도자료 등록일 2023-06-02

첨부파일(1)  5.기억의 비망록 표지.jpg 20 hit/855.6 KB [다운로드](#)







강진 6.25 민간인 희생자 113명 증언 책으로 담았다  
강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준비위... '기억의 비망록' 펴내

강진군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기술한 한국전쟁 증언록 '강진군 한국전쟁 기억의 비망록'이 출간됐다.

강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준비위원회 이름으로 발간된 이 책에는 6·25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부모들에게 전해 들은 후손들의 증언이 생생하게 실려 있다.

책은 총 390여 페이지 다섯 챕터로 구성됐으며, 1장부터 3장까지는 일제강점기 강진군 항일독립운동 활동과 해방 이후 미군정시절 건준위 및 인민위원회 활동, 여순사건 파장 등을 다루었고, 4장 해방 이후 한국전쟁 시기 피해 관계인 구술에서는 좌·우익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현장 증언을 채록해 가슴 아픈 비망록을 완성했다.

특히 4장 피해 관계인 구술에는 총 113명의 증언자들이 증언한 332명에 대한 희생자들의 피해 상황이 생생하게 드러나, 이 땅에 두 번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알렸다.

'기억의 비망록'은 자료를 토대로 한 재구성에서 그치지 않고, 필자들이 발품을 팔아 강진군 11개 읍면과 또 광주 서울 등 출향인을 찾아 직접 면담하고 유가족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증언 채록과 현장 확인을 통해 강진인이 겪은 6.25의 아픔을 절절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강진 역사의 사료로 평가된다.

취재에서 나타난 강진군 6·25는 내전적 성격이 강한 전쟁으로 규명되며, 좌익과 우익은 마을 내부에서 서로 다른 신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향반과 천민, 지주와 소작인, 친족과 마을, 기독교인과 공산주의자 간의 계급 갈등이 촉발된 가운데, 이념이 뭔지 모르는 민초들이 오직 생명부지를 위해 부역자로 몰려 수많은 희생들이 인민군 점령 시기와 맞물려 서로가 죽고 죽이는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지역의 수많은 생채기의 사레들이 수록되어 있다.

책에는 윤순상(성전면, 98세)씨가 작천면에서 의사로 지내던 형님이 당시 인민위 부위원장을 맡아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는 주민들의 부탁에 따라 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가 경찰 수복 후 경찰에 끌려가 마대 자루 2개를 두고 목숨하고 바꾼 사연 등 증언들이 빼곡히 들어 있다.

이밖에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면장을 역임한 면장들의 수난사, 산기슭에 조성된 좌익마을, 좌익에 숨진 우익 열사들을 기리는 의순비, 좌익적결 성명서와 보도연맹, 전쟁터에서 보낸 어느 병사의 사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목록



GANGJIN

***Web Contents***

